

서울의 물가상승 추이 및 대응방안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한진아 연구원 cycle13@si.re.kr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

I. Intro

II. 서울의 물가 상승 추이

III. 서울 생활의 과거와 현재

IV. 글을 마치며

* 본 내용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내용으로 서울시의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I. Intro

- 세계경제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 주요 경제국의 경기 침체, 중국의 잠재성장력 약화 등 악재가 모여 예년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불확실성 증대
 - 당초 금융위기만 극복하면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였으나 유럽의 재정위기가 함께 작용하여 예상보다 저성장 추이가 장기화될 우려
 - 최근(7월)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예상보다 낮은 3.5%로 전망하였으며, 10월 또 한 차례 하향 조정 가능성 증대
 -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불안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 시장불안 상황이 장기화 될 조짐
- 더불어 태풍,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미국과 남미의 주요 곡물가격 상승은 곡물 수입국에 파급되면서 가공식품 전반에 확산될 가능성 증가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곡물 값 상승은 곡물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에 물가상승에 영향
 - 또한 내부적으로 태풍 및 장마 등의 계절적 영향으로 양파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식탁 물가 부담이 우려 확산, 이례적으로 태풍이 연달아 와 추석 물가 상승 등 생계위협
- 경기악화 장기화 및 기상이변, 유가불안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곧바로 생계위협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에 타격을 입힐 가능성 확대
 -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가 상승 또한 경기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불안정한 경제난에 가중
 - 물가 상승 속도에 비해 임금상승률은 형보 수준을 유지하는 스크루플레이션¹⁾ 발생 가능성 예고
 -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불안요인이 인플레이 심리확산, 스크루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서민들의 생계부담이 가중되는 결과 야기

1) 일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수요 감소로 물가도 하락한다. 하지만 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중산층 임금은 오르지 않고 체감 물가는 급상승해 쥐어짤 만큼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스크루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II. 서울의 물가

1. 도시별 물가 순위

-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이자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유닛(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매년 “세계 주요도시 물가 조사보고서”를 발간
 - 일년에 두 번 실시되는 이 조사는 식료품, 교통, 학비, 생필품, 부동산 임대료 가격 등 총 160개 품목과 서비스 가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미국 뉴욕의 물가를 100점 기준으로 각 도시의 점수 측정
- 올해 2월에 발표한 세계주요도시 물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는 스위스의 취리히인 것으로 조사됨
 - 취리히에 이어 도쿄, 제네바, 오사카, 오슬로, 파리, 시드니, 멜버른, 싱가포르, 프랑크푸르트 등이 2~10위 차지, 미국 뉴욕은 47위,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상하이선 공동 42위로 조사
-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36위에서 9단계 상승한 27위로 지난해에 비해 물가 상승폭이 크며 속도도 1위 도시인 취리히 물가 상승률에 비해 빠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아직 20위권에 속해있으나 미국의 뉴욕 물가보다 20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물가가 높은 편임을 시사

2. 전국과 서울의 물가 추이

- 최근 2년 전국과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물가추이 평균은 각각 3.3%이며, 2012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2%대 물가를 시현하고 있음
 - 2012년 8월 전년동월대비 서울의 물가는 1.8%로 최근 2년 중 가장 낮은 물가지수를 나타내며 2%대 물가지수를 시현하고 있으나 8월 현재 저점을 찍은 것으로 판단
 - 이러한 추세는 기저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두 차례 연이어 맞이한 태풍으로 신선식품의 가격상승과 수출입 난조로 인한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점차 3%대의 평균 물가로 상승 예상

○ 2012년 8월 전국의 전년동월대비 물가지수는 1.2%로 서울보다 0.6%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의 8월 전년동월대비 물가지수는 1.2%이며 서울은 1.8%로 서울보다 전국의 물가가 0.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 부산, 대구가 각각 1.4%, 울산, 경기, 인천 1.5%, 1.3%, 1.1% 순
- 최근 2년간 전국의 전년동월대비 물가지수는 서울과 비슷하거나 상회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올 2월부터는 서울보다 하회하는 추이를 나타내어 서울의 물가가 평균보다 상회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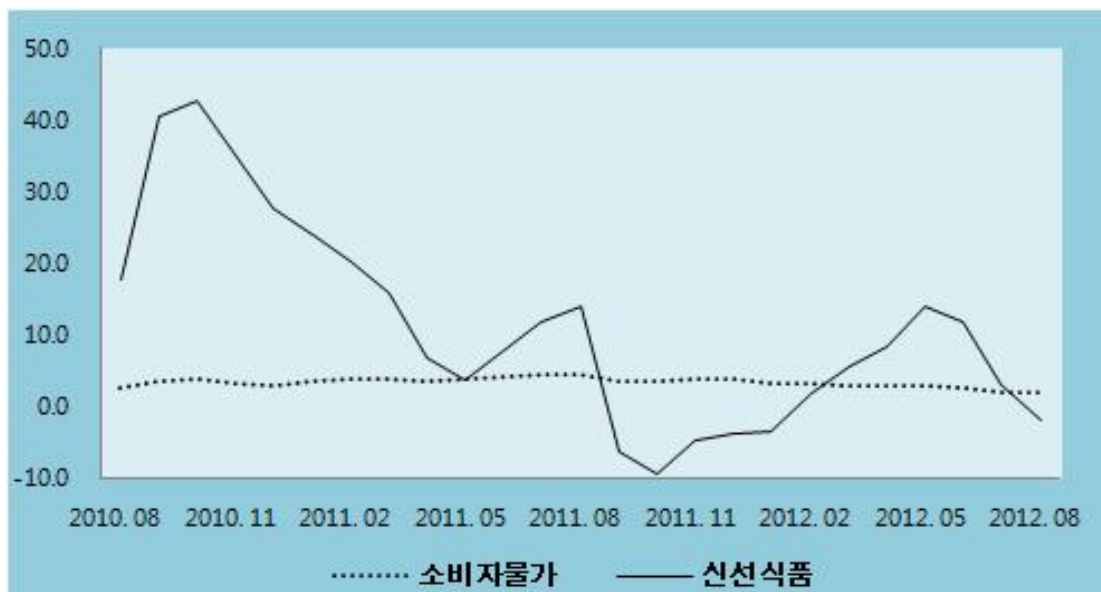
[그림 1] 전국과 서울의 물가추이(2010. 08 ~ 2012. 08)

3. 서울의 물가 추이

- 서울 전년동월대비 소비자 물가 최근 2년 평균 3.3%, 신선식품 평균 11.3%
 - 서울지역 8월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는 1.8%로 6개월째 2%대를 시현하고 있으나 최근 2년(2010.08~2012.08) 평균은 3.3%

- 반면 서민생활물가와 가장 밀접한 신선식품은 8월 전년동월비는 -1.9%를 기록하였으나 등락 폭이 커 2년(2010.08~2012.08) 평균 11.3% 기록
- 최근 소비자물가와 신선식품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거나 이는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으로 경제상황 및 물가상승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통계자료에 의한 서울의 8월 신선식품 지수는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 영향으로 실제 신선식품 가격과는 차이가 있음
- 서민들의 기본 생활과 가장 밀접한 신선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안이 필요,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단위: 전년동월비, %)



* 자료: 통계청

[그림 2] 서울의 물가, 신선식품, 생활물가 추이(2010. 08 ~ 2012. 08)

3. 도시 가계소득과 서울 물가 추이 비교

- 도시의 분기별 가계소득(명목)은 2012년 3/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평균 3백 88만5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감률의 평균은 1.3%로 나타남
 - 2010년 3/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 도시의 가계소득은 평균 3백88만5천원
 - 가계소득 증감률은 분기별로 등락 폭이 크기는 하나 8분기 평균 1.3%로 나타남
- 2010년 3/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 서울의 전분기대비 물가 상승률은 8분기동안 3.4%
 - 최근 물가가 2%대를 시현하고 있기는 하나 8분기 평균 3.4%로 나타나 물가는 여전히 높음
- 도시 가계소득 증감률(1.3%)에 비해 물가 상승(3.4%) 속도가 약 2.6배 빠른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가계생활의 어려움 증가
 - 최근 8분기(2010년 3/4~2012년 2/4) 도시 가계소득 증감률은 물가상승률 보다 2.1%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계소득은 더디게 증가하는 반면 물가 상승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계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가계소득 증가 속도에 비해 물가 상승 속도가 높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 스크루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증가
 -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인플레이 심리가 확산되고 가계소득 보다 물가가 높은 스크루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생계부담 가중 우려

<표 1> 도시 가계소득 및 서울의 물가 상승

(단위: 천원, 전년동월비, %)

	2010 3/4	4/4	2011 1/4	2/4	3/4	4/4	2012 1/4	2/4	평균
가계 소득	3,703	3,649	3,913	3,761	3,946	3,936	4,178	3,993	3,885
증감률	3.2	-1.5	6.8	-4.0	4.7	-0.2	5.8	-4.6	1.3
물가 상승률	2.8	3.2	3.6	3.8	4.1	3.7	3.1	2.7	3.4

*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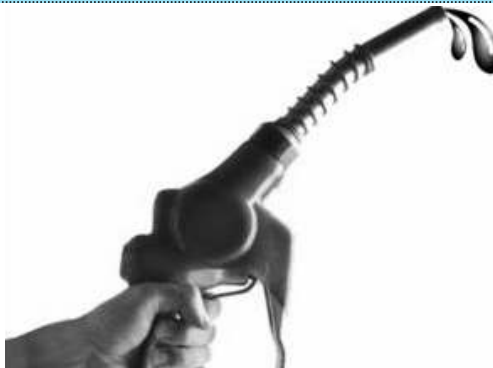

주: 도시(명목)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

III. 서울 생활의 현재와 과거

- 서울 물가는 최근 6개월 동안 2%대를 시현하며 물가 하락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
 - 가계소비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증가
- 서울 시민들의 물가상승 체감도를 확인하기 위해 2년 전과 현재 주요생활품목을 중심으로 “서울시 물가정보” 사이트를 통해 물가 상승 정도를 확인하고자 함
 - **조사시점**은 2010년 8월과 2012년 8월로 지정하고 **조사지역**은 신선식품의 경우 남대문 시장, 휘발유는 중구, 대중교통은 서울 요금 기준으로 조사하였으며 나머지 항목은 중구 명동 기준
 - **조사항목**으로는 서민생활의 기초 생활품목을 중심으로 임의선별. 신선식품은 상추, 배추, 오이를 공공요금에서는 버스요금, 휘발유를 서비스는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그리고 외식생활 항목은 자장면, 삼겹살, 갈비탕을 중심으로 가격 조사 실시
 - **조사방법**은 각 항목별로 “서울시 물가정보” 사이트에 공개된 2010년 8월 가격과 2012년 8월의 가격을 조사하여 증감률 확인
- 조사항목 중 2년 전에 비해 가장 높은 상승을 보인 품목은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신선식품과 공공요금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서비스업과 외식비용인 것으로 나타남
 - 신선식품인 사과, 고등어, 오이, 상추 등의 가격은 2년 전과 비교하여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먹거리 가격이 물가상승의 주 요인으로 파악됨
 - 또한 공공요금인 대중교통과 전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휘발유의 경우 각각 15%, 21%로 신선식품 다음으로 물가가 상승하였음
 - 미용실, 대중목욕탕, 세탁소 등 서비스 업종도 평균 9.3% 증가하여 생계부담의 일부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 그 외 한국 사람들이 외식으로 가장 많이 찾는 삼겹살, 자장면, 갈비탕은 각각 15.1%, 7.4%,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신선식품, 공공요금, 서비스업, 외식업의 가격 증감률

(단위: 원, %)

사과(1개)			고등어(1마리)		
					
2010.08	2012.08	100% ↑	2010.08	2012.08	66.7% ↑
1,250원	2,500원		3,000원	5,000원	
상추(100g)			오이 (1개)		
					
2010.08	2012.08	60% ↑	2010.08	2012.08	50.2% ↑
750원	1,000원		666원	1,000원	
휘발유(보통휘발유)			대중교통(현금승차기준)		
					
2010.08	2012.08	21% ↑	2010.08	2012.08	15% ↑
1,856원	2,245원		1,000원	1,150원	

미용실(커트 기준)



2010.08	2012.08	
15,647원	18,639원	19.1% ↑

목욕탕(성인기준)



2010.08	2012.08	
7,500원	7,833원	4.4% ↑

세탁비(양복 기준)



2010.08	2012.08	
7,667원	8,000원	4.3% ↑

삼겹살



2010.08	2012.08	
9,140원	10,518원	15.1% ↑

자장면



2010.08	2012.08	
4,517원	4,850원	7.4% ↑

갈비탕



2010.08	2012.08	
7,667원	8,000원	4.3% ↑

* 자료: 서울시 물가정보, 생필품가격정보, 석유정보망, 농수산물유통정보

주: 서울 중구 명동의 2010년 8월과 2012년8월의 서비스업 가격 및 외식비 비교, 신선식품의 경우 남대문시장 기준

IV. 글을 마치며

- 가계소득 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상승의 압박은 생계부담으로 이어져 스크루플레이션 발생 가능 심화
 - 6개월 연속 2%대 물가를 시현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기저효과 등의 일시적 영향으로 판단되며 실제 신선식품, 공공요금, 서비스업, 외식 등 서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항목은 상승
 - 대내외 물가불안 요인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시장불안은 계속 반복되고 가계경제의 불안 지속될 전망
- 이와 같은 물가 상승은 다양한 원인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비해 원인별 대안 마련이 필요
 - 신선식품의 물가 상승은 기상이변과 같은 천재지변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나 불안정한 유통구조 및 공급체계도 영향을 끼침
 -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요금은 정책 및 가격변동 적용 시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휘발유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항목으로 대외 상황에 따른 일시적 충격이 큰 품목
 - 서비스 및 외식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기상이변 및 공급망에 따른 신선식품 가격상승,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

농수산물

- 농수산물은 국내외 공급여건의 변동 폭이 큰 품목으로 지속적인 가격동향 및 수급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 기상이변에 대한 선제대응이 어려워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는 농산물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고 완급 조절 필요
- 유통구조와 공급구조 등 유통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직거래 확대 등을 통해 농산물과 공산품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통구조 효율화하는 방안 마련

공공요금, 휘발유 및 기타

- 공공요금의 경우 공공요금 인상시기에 조절이 필요하며 휘발유와 같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안정적 공급선 확보
- 또한 가계는 에너지 절약과 함께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한 노력 강화하고 기업은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참고문헌

- 서울시 물가정보, <http://mulga.seoul.go.kr>
- 농수산물유통정보, <http://www.kamis.co.kr/customer/main/main.do>
- 석유정보망, www.petronet.co.kr
- 생필품가격정보, <http://price.tgate.or.kr/front/mainFrm.jsp>
- 2011년 서울 통계연보,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